

제11차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국민방문 출국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싱가포르를 국민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APEC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협력체입니다. APEC 국가들은 우리나라 교역의 70%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PEC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경제·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대 강국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 증진, 지식기반경제 확충과 금융 협력, 그리고 반테러 협력방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최된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이후 도하개 발아젠다(DDA)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만큼 APEC이 경제협력과 지역현안

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APEC에 이어 22일부터 싱가포르를 국빈으로 방문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수준의 물류·교통·금융·관광의 허브입니다. 싱가포르와 FTA 추진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건설·IT·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싱가포르 방문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